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기뻐서 막힌 속 확 뚫리는 듯…”



추사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나가묵연첩X영해타운첩〉에 수록된 편지.

초의 스님, 초파일등·편지·종이 보내
제주에 온 두 아들 한양 가는 길에
스님 찾아 뵙도록…代 이은 교유

1846년 4월 18일 추사의 편지에는 벗의 안녕과 해배를 일심으로 기원했던 초의의 성의가 돋보이는 선물, 즉 초파일등을 제주에 보냈음이 확인된다.

〈완당전집〉 ‘여초의’ 25신과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 아모레 퍼시픽박물관 소장본인 〈영해타운첩〉에 함께 수록된 이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본에는 간지가 없어 어느 시기의 편지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가 요행히 〈영해타운첩〉에 의해 그 연대가 밝혀진 것. 이 편지에는 쓸쓸한 유배지 제주에서 풍화의 고통을 겪던 추사에게 아들 상무(1819~)와 상우(1817~1884)가 찾아와 작은 기쁨을 선사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추사에게 있어 긴 가뭄에 만난 단비 같은 것이었으리라.

이런 반가운 격정에도 추사는 “우리 집 아이가 멀리 큰 바다를 건너 와서 조금 위안이 되었다”고 담담히 말하였으니 대유(大儒)의 속내는 이런 대목에서 빛난다. 이어 “지난 해 섣달에는 배가 막히고, 봄이 지난 후에도 병이 심하여 일체 소식이 모두 끊어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초의의 편지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초여름이 막 시작될 즈음에 보낸 추사의 편지에는 덩달아 싱그러운 초여름의 풋풋함이 묻어나는 듯하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前臘之船阻 春後之病甚 一切聲聞俱泯 頃從金君便 收到鐙宵梵[祇] 並惠佳紙 欣開如桶脫 即又徐胥來致禪函 信息甚大 彈指之頃 春已夏矣 想山中綠陰日厚 禪誦清淨 輕安自在 爲之遙遙耿溯 此狀衰頹比甚 仍成病窠 到底苦業 但家兒遠涉大海而來 稍以慰存 今又送歸 欲尋寶棲 似當一笑相[遇]也 眼花比添 艱此申覆 縞禪欣衲 無以另具 並照是企

不宣 那山老人 丙午 四月十八日

지난 해 섣달에는 배가 막히고, 봄이 지난 후에도 병이 심하여 일체 소식이 모두 끊어졌었습니다. 마침 김군 편에 초파일 등과 편지를 받았고, 아울러 좋은 종이까지 보내주시니 기뻐서 막힌 속이 확 뚫리는 듯합니다. 또 이어서 서리가 와서 스님의 편지를 전해주어 자세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봄이 지나고 이미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산중의 녹음은 날로 짙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선송이 청정해 가볍고 편안하여 걸림이 없으시겠지요. 멀리 멀리까지 마음이 치달려갑니다. 이 몸은 더욱 쇠약해지더니 병집까지 생겼으니 결국 고통스런 업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집 아이가 멀리 큰 바다를 건너 와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만 지금 또 돌려보냅니다. 스님의 절을 찾아 가려고 하니 응당 웃으며 서로 만나리라 여겨집니다. 눈곱이 더 끼여 간신히 이만 적습니다. 호의 스님과 자흔 스님에게 답장을 못하니 모두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나산노인 1846년 4월 18일

초파일등과 초의의 편지 그리고 남평의 책지는 추사의 마음을 “기뻐서 막힌 속이 확 뚫리는 듯”하게 했다. 남평의 종이는 초의에게 단단히 부탁했던 것, 종이는 그의 회한과 자임(自任)을 마음껏 천명(闡明)할 이상 세계였다. “명선”과 “일로향실” 그리고 “다삼매”, 세한도, 부작난(不作蘭) 등, 그가 남긴 유묵에는 그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평심(平心)이 서려 있는 듯하다. 이러한 웅지의 소유자도 그에게도 자식에 대한 안부가 걱정이 되었던가 보다.

이 해 5월 25일. 집으로 보낸 편지에 “나주 이후의 소식을 다시 듣지 못했다. 상우는 이미 출발하였을 터인데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여 몹시 우울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라는 추사의 뜻을 이은 아들들이 “스님의 절을 찾아 가려고 하니 응당 웃으며 서로 만나리라”고 하였으니 이들의 대 이은 교유를 짐작케 한다.



추사는 자흔과 호의에게 안부를 전해 이들의 종유를 돈독히 이어갔다. 자흔(1804~1875)은 초의의 제자요, 호의는 초의와 법 형제간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복지·포교·환경운동 대중과 함께하는 수행”

현각 스님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이사장)

1986년 원주시 명륜동에 성불원 개원
논밭만 있는 곳 신도 수 줄어들까 걱정
봉고차로 신도 태우며 묵묵히 전법매진
성불복지회 법인 세워 13곳 복지관 운영
자연학습원 이끌며 환경운동에 매진
“공동체정신 실천할 수 있는 도량 만들 것”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1900년대 초부터 이 단어를 사용한 서구에 비하면 80여 년이나 늦은 시기였지만, 당시 한국의 개신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 단체들은 의료기관, 양로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불교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다.

그만큼 ‘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일반화 돼있지 않았던 시절인 1980년대 후반, 강원도 원주라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20여 년간 자비사상을 실천한 스님이 있다.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이다.

열 여덟 살에 불가에 귀의한 스님은 20여 년이 넘게 강원도 지역의 불교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복지뿐만 아니라 포교, 어린이교육, 환경운동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하면서 온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논밭만 있던 곳에 지하법당 세워 포교

1985년 영월 보덕사 주지로 있던 현각 스님은 소임을 내려놓고, 월정사에서 겨울을 보냈다. 당시 낙산사 주지를 역임했던 故 진철 스님도 함께 있었다. 강릉자비복지원을 운영하던 진철 스님은 현각 스님에게 말했다.

“앞으로 스님들이 사회복지를 별도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포함돼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하든 자신의 역량에 맞는 만큼 사회복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현각 스님은 평소 불교 안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일을 하는 스님들이 있어도,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철 스님의 조언은 그런 스님의 생각에 보태어졌고, 현각 스님은 복지를 통한 포교를 이루어야겠다고 발원했다. 절 안에서보다 절 밖에서 불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각 스님이 복지·포교활동을 처음 시작한 곳은 원주시 외곽의 명륜동이다. 지금은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현각 스님이 1986년 성불원을 세울 때만 해도 주위가 전부 논밭이었다.

“어렵게 땅을 마련해 1층 건물을 올렸지만 지상은 세를 놓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지하에 모셔진 법당은 방수가 잘 되지 않아 여름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이 차 방석이 떠다니곤 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법당의 외양에 신도들의 발길이 줄기도 했다. 그래서 스님이 직접 신도관리(?) 차원에서 법회가 끝나면 봉고차로 신도들의 집까지 데려다 줬다.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현각 스님은 불교가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전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 ‘이불 속에서 활개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나와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틀 안에서는 큰 소리치면서 밖에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가 1700년이라고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입니다. 개신교는 학교와 병원, 천주교는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불교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어요. 스님들은 전부 성불(成佛)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현실을 부정한 성불은 없습니다. 현실을 꿰뚫어보고 그 삶이 편한 것이 열반이자 니르바나인데, 그 삶을 따로 놓고 열반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3년 쯤 포교활동을 하던 1990년, 2층에 건물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 올린 다음 1층에 성불유치원을 개원했다. 올해 24회 졸업생을 배출한 유치원에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12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물질복지보다 정신복지 지향

유치원을 개원한 이듬해인 1991년, 현각 스님은 노숙인과 행려자를 위한 시설인 원주시립복지원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정신질환자, 지체 부자유자, 연고가 없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등 100여 명이 좀 넘게 생활하고 있다.

행려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삶의 존엄을 지켜가기 어렵다. 처음 이곳을 맡은 스님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만큼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물질적 지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존엄을 챙기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사회복지를 하면서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을 얻고 그들 중심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에게 첨단기계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눈을 맞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이런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수용자들의 정신적 영역을 채우고 보살피면서 스님 자신도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불원도 전통적인 불교의 뜻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 연계되는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펴는 곳이 되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이듬해인 1992년 원주시에서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세웠고, 현각 스님에게 운영을 위탁해왔다. 성불원에 가까이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정 가구 이상의 영세민 주거 단지 속에 의무적으로 마련된 복지관이었다.

20여 년간 불교계 복지관으로서 자리를 지켜온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처님 도량이나 다름없다.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어린이집, 독서실, 노인 대상무료 급식, 노인대학, 목욕탕 등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교실, 청소년 강좌, 주부 영어 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현각 스님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새터민과 결혼이주여성,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특별한 신경을 썼다. 그래서 명륜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회장을 맡아 다문화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스님은 새터민을 위한 정착지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지난 2005년부터 원주시에 거주하는 새터민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맨손으로 차근히 강원도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펼친 스님은 복지법인인 성불복지회를 설립해 아동시설 진여원, 원주시립복지원 등을 비롯해 시·군·관에서 수탁 받은 복지관까지 현재 1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만 200명을 두고 있다.

상담가이자 환경원력보살로서 활동

월정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거쳐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현각 스님은 일찍부터 대불련 지도법사를 맡으면서 불교 학생 단체를 창립시키기도 했다.



현각 스님은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원주환경운동연합을 이끄는 등 환경운동에 매진, 최근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현각 스님은 … 1951년 원주 출생. 1970년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탄허 스님을 수계법사로 수계받았으며, 1974년 해인사 승가대와 1982년 동국대를 졸업했다. 영월 보덕사 주지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호법부장,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이사장과 성불유치원 원장, 강원도 자연학습원 원장,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회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그리고 2005년 당시 철오 스님과 선우도량 공동대표를 맡으며 수행을 위한 스님들의 공부 방식인 선우논강 법석을 개설하고 스님들이 자유롭게 수행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또 선거관리 위원 및 투표 관리 위원장, 원주 시사종사 편찬위원 등의 제도권일도 도맡았으며, 공선협, 환경운동연합 등 진보 성향의 단체에 이르기까지 두루 참여했다.

이런 덕택인지 스님은 불교뿐 아닌 갖가지 사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각적이다. 또한 스님의 말은 일반 사람들도 알아듣기 쉬워 듣기에 편하고 친근하다.

이처럼 현각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녔으며,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날마다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1993년 당시 불교방송에서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살며 생각하며'를 3년간 열정적으로 진행한 일이 그렇다. 스님은 매일 밤 12시에 쉽게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의 속상한 얘기와 고민거리 등을 들어주며 즉석에서 고민상담을 해줬다. 스님의 활동영역은 복지 · 포교 · 신행 뿐 만이 아니었다. 현재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원주환경운동연합을 이끄는 등 환경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각 스님은 강원도 자연학습원에서 학생과 일반인 등 매년 1만3000여명의 사람들에게 환경보호 실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수경 스님, 도법 스님과 지리산과 북한산, 새만금과 사대강을 살리기 위해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등을 펼쳤다. 최근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상한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은 1998년 강원도 자연학습원 원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펼쳐왔다.

"어릴 때는 개울물을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런 물을 쓸 때도 어른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승가의 노스님들도 세숫물을 한 번만 쓰고 버리면 혼을 낼 정도로 자연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선조들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현대인들이 배우고 생활습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생명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 생각한 스님은 "환경은 곧 생명이라는 인식이 배제된 채 자행됐던 인간의 파괴적 행동들이 현재의 환경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생활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질 오염, 대기오염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부터 습관을 고쳐나간다면 기관이 바뀔 것이고, 기업들도 바뀔 것입니다. 개개인은 돌이켜보지 않고 기업이나 국가만 탓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의 망이 뚫리면 망 전체가 뚫리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옷을 샀는데 올이 하나 터지면 그 옷의 값어치가 떨어지듯 말이죠. 실 한 올의 가격이 전체 옷값과 맞먹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이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공동체 마을 만드는 게 목표

불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웬만한 분야에서는 혁혁한 공을 이룬 현각 스님에게도 서원이 있다. 바로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것이다.

"마을이 됐든, 모임이 됐든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나 단체가 늘어나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역량이 있어도 전체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활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각 스님은 기도와 수행 그리고 전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 자기 것으로 체화 한 뒤 전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처님은 반드시 안거가 끝난 뒤에 전법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인 요즘 승가도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흔히 토굴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의 토굴생활은 스님들이 전법하기 전 역량을 비축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성불을 위한 수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력이 없는 생활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그때그때 환경과 변화에 휩쓸려 부평초 같이 이리저리 떠돌기만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성실하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충주 아동생활시설인 진여원의 아동들과 현각 스님.



스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생명의 강을 위해 4대 종단 대표로서 활동했다.

전법일기

세계불교 '붐' 한국불교 '위축'

한국불교의 미래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떨까? 나이를 먹을수록, 승람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 문제가 염려스럽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우려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2005년 우리나라 종교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50대 이상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할 경우, 불자는 32명, 개신교와 천주교를 더한 기독교는 29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불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20세 미만의 연령층을 100명으로 볼 경우 기독교 인구는 31명이지만 불자는 그 절반인 16명에 불과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불자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나마 100명 가운데 16명이라도 불자임을 표방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응답자의 희망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노령층으로서 자신의 자식이나 손자 · 손녀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불교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이 기대감이 통계에 반영돼 있을 거라고 나는 본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의 50대가 상당수 사망하는 30~40년 후인 2035~2045년의 불교계는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을 것이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불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 개신교는 이미 90년 이후부터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그 인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 천주교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할 것이다. 1995년 295만 명이던 신자의 수가 2005년에는 51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과 천주교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두텁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그림 · 박구원

젊은 세대일수록 불자수 감소

"한국불교 변하지 않으면

박물관서 과거 흔적만 보게 될 것"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교인구의 수가 많은 데 대해 "불교는 교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믿게 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1995년에 10대와 20대가 10년 뒤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보면 대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1995년에 139만 명이었던 10대 불자는 10년 후에 141만명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동안 164만 명이었던 20대는 161만 명으로 줄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불교를 믿게 되고, 불교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나의 이 같은 전망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순전히 감에 의한 분석이지만 이미 2012년 초에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2044년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 내놓은 전망과 별로 다르지 않다.

누군가가 그랬다. 불교는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죽을 쑤고 있다고. 왜 그럴까?

우리 축구팀이 상대방에게 지고 있다면 둘 중 하나다. 우리 팀이 잘못하든지, 상대방이 잘 하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한국 기독교를 상대하는 한국 불교는 어떤 상태일까? 둘 다겠지.

나는 한국불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박물관에서나 화려했던 과거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불교가 영원히 이 땅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읽어야 하고 동시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의 역할은 2,600년 전에 끝났다. 지금 남은 것은 우리의 역할일 뿐이다. 나는 그 중 아주 작은 일부를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오늘도.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공단등 /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 주름등 / 왕생극락접등 / 영가등 / 극락왕생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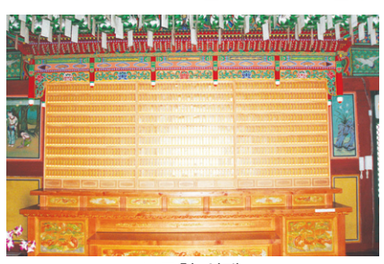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